대륙 코끼리

김 정 만 〈남서울대공원 진료과장〉

지구상에 살고 있는 2백12종의 거북종류 중 가장 몸집이 크며 오직 육상에서만 살고있는 코끼리거북은 다른 거북처럼 수중생활이나 담수어가 있는 강가나 늪지에서는 생활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코끼리거북의 생김새는 바위덩어리같이 과묵하고 만사를 침착하고 여유있게 생활하면서 소리소문도 없이 전진만 하는 행동때문에 「사막의 탱크」또는 대륙거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끼리거북은 덩치에 걸맞게 일생동안 인자한 자태와 어질고 착한 돌부처처럼 다른 동물의 생활을 넘보거나 시샘, 질투, 간섭, 반항, 도전, 투쟁과 살생등을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생활만을 충실히 하는 동물이다.

또 다른 동물의 도움이나 협조까지도 바라지 않는 투철한 자립정신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에 속한다.

1935년 남미의 에콰돌 서쪽에 있는 「카라파고스」섬에 처음으로 상륙한 유전학의 권위자 찰스 다윈은 이곳에 서식하는 15종에 달하는 카라파고스 코끼리거북과 각종 거북류의 생활습성 및 생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 기록에 의하면 古來의 고래잡이 포경선들은 남미에서 북태평양까지 고래떼를 따라 1~6개월 간의 장기순항을 하게됨에 따라 식량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백질원인 쇠고기는 장기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경선의 어부들은 쇠고기대용으로 지방질이 적고 연하며 감칠맛이 나는 코끼리거북의 고기를 최고급의 육류로 즐겨 먹었다고 한다.

코끼리거북은 맛이 뛰어난 점 외에도 장기 저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코끼리거북을 포획한 후 배의 갑판위에 네다리를 묶어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3~6개월간은 살아있는 상태로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신선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가면서 고래사냥을 계속할 수 있어 포경선의 선원들은 이 코끼리거북을 영향보충의 보고로 즐겨 먹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경선 선원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난을 당한 코끼리거북의 피해상황을 보면 1831~1866년까지 각종 포경선이 무려 1백89회나 이 지역을 드나들면서 1만여마리의 코끼리거북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원들은 코끼리거북을 고기는 먹고 껍질은 각종 장식품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코끼리거북의 종류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다부라거북, 카라파고스코끼리거북이 있고 체구가 작은 육발이거북등이 있다. 이 거북들의 특징을 보면 알다부라 코끼리거북은 인도양상 알다부라군도의 사막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며 신장은 1m정도이고 큰것은 무게가 500kg 까지 나간다.

그런가 하면 카라파고스 코끼리거북은 남미의 에콰돌의 서쪽해상 카라파고스군도에 15종이 서식하는데 신장은 1m정도이고 표고 500m의 초원지대까지 등산하면서 먹이를 따라 이동하며 살아간다.

특히 카라파고스거북은 먹이로 해변가의 갑각류와 나뭇잎, 야생하는 각종 씨앗이나 과일을 주로 즐겨먹고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선인장이라고 한다.

코끼리거북은 후각, 시각, 청각이 다른 동물에 비하여 잘 발달된 동물이다.

영감에 의하여 모든 행동을 취하며 특히 먹이를 찾아 한가로이 다닐때는 마치 둥근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큰 덩치의 코끼리거북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머리와 다리등 노출부분을 腹甲속에 넣고 꼼짝도 하지 않으며 바위처럼 죽은척 하고 있다가 주위가 조용하고 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머리부터 살그머니 내어 밀어 사방을 정찰하고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확인되면 목표물을 향하여 계속 전진한다.

이 거북은 특히 후각이 예민하여 연기나 인위적인 냄새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또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가지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코끼리거북은 다른 동물들처럼 민첩하고 날렵한 행동으로 매연이나 화재발생과 같은 위험한 지역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코끼리거북은 민첩하지 못하고 걸음이 느린 대신 코끝을 이용하여 사방 4~6km까지의 먼곳에서 바람에 의하여 밀려 오는 매연과 인위적인 냄새등을 감별함으로써 보통 30~40분 동안의 시간적인 대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한다.

코끼리거북은 사막이나 산속에서 먹이를 찾아 걸어가는 도중이나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산불이나 매연등의 위험이 닥쳐와 미처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목을 반쯤 내민 다음 가장 가까운 거리내에 있는 바위나 고목등 물체밑으로 기어들어가 불길을 1차로 피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면 腹甲속에 머리와 다리등 노출부분을 완전히 숨긴다음 불이 꺼지거나 연기등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참고 견디어 내는 인내심이 대단한 동물이기도 하다. 화재를 대피하는 도중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하여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전호흡까지 하면서 불과 싸워 끝까지 이겨내는 동물이다.

이와같이 최악의 경우를 당하여도 한마디의 비명소리 없이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특이한 동물 코끼리거북은 비록 자신은 수난을 당하더라도 자기 몸체 밑에 깔려있는 잡초들은 화재의 피해를 입지않고 무성하게 자라 씨앗을 맺도록 해줌으로써 화재로 인해 멸종의 위기에 처한 식물들의 번식을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화재의 위험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코끼리거북은 화상치료에도 영물다운 행동을 보여준다.

3도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바닷가의 개펄이나 강가의 수렁같은 곳을 찾아 목만 밖으로 내민채 몸통전체를 파묻고 화상독을 해독시키는 자가치료를 시도한다.

화상이 심하면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5~7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완전히 해독이 될때까지 끈기있게 치료를 한다.

어느 정도 해독이 되면 산과 들로 다니면서 평상시 먹지도 않는 각종의 산약초를 먹으므로써 화상을 치료하며 선인장이 밀집된 곳 한가운데 들어가서는 발과 몸통을 이용하여 선인장을 꺾어 즙을 내어 화상부위에 발라 화상독을 환부로 부터 제거하는등 영물답게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상부위가 아물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화상독이 심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자리를 찾아나선다.

해풍이 심한 곳이나 햇빛이 있는 곳은 피하고 또 죽은 후 자신의 추한 화상부위가 타동물에게 보이지 않을 아늑한 자연굴이나 바위틈을 찾아 조용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영특한 동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경우는 만분의 1 정도로 극히 드물며 평소 만사에 침착하고 여유있게 지형지물과 잘 발달된 후각을 이용하여 화재의 피해를 미리 예방한다.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뿐더러 화재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코끼리거북은 사전대피에 만전을 기하면서 생명을 보존해가는 화재대피의 명수로 손꼽히고 있다.